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호 [부록 제25532호] 주체106(2017)년 1월 2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강기섭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인 강기섭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월 22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강기섭동지를 너무나

뜻밖에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유능한 비행지도일군으로 성장하여 중요비행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국제, 국내정치항로운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였으며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혁명전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중한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강기섭동지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살펴보시며 강기섭동무는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여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면서 따듯이 위로해 주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연구도론회와 특보회가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예쥘트, 탄자니아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 교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선인민이 새해에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벌려놓는 위험한 실험장면들을 견어치워야 한다.

조선인민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에스파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침이다. 신년사를 통하여 고인의 사상과 뜻을 잘 알게 되었다.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펼쳐나선 조선인민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

하였다. 예쥘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예쥘트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소 조 판자니아전국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선의 자주적 통일실현에서 나오는 과업들을 명시한 위대한 강령이다. 올해에도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심단결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나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다그쳐나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크라스노야르스크지부 책임자 예델리아인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다. 조선인민은 수행을 끝없이 힘 모으고 따르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 있다.

당과 국가, 인민이 하나의 통일적인 체제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은 일심단결로 전진하며 승리하고있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 자히드 아흐마드는 조선에서는 명도자와 인민이 순결하고 공고한 동지적의리의 관계를 맺고있다.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추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페인기자협회 연구회 위원장 페르난데스 에이. 두민두와 르다네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

였다. 선대수령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위하여 조선은 정치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베르페 말론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

의 길로 끝까지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명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명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진실과 객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